

‘연안’ 으로 간 학병들 ; 학병세대와 커뮤니티*

-신상초, 엄영식의 두 『탈출』에 대한 고찰

노현주** | 경희대학교

< 목 차 >

1. 서론; 필연적 탈출에서 ‘우연, 혹은 운명’의 조우로
2. 조선의용군과 탈출 학병의 항일투쟁
3. 공산주의 노선 속의 지식인의 존재론
4. 의용군 출신 학병의 해방공간
5.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고는 학병세대의 서사 중에서 일본군 병영에서 중국 공산군 지역으로 탈출했던 수기들을 고찰하였다. 중국 공산군 점령구로 탈출한 학병들은 조선의용군으로 편입되었다. 의용군이 된 학병들은 한국광복군이 된 학병들의 숫자와 비교하여 적지 않았고 44년부터 46년에 걸쳐 항일무장투쟁 전선에서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병세대의 자유주의적 근대성과 의용군의 공산주의 노선이 갈등을 일으켰다. 학병들은 합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9583)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리적 공론장을 원했고 조선의용군은 공산주의의 국제노선을 따르길 요구했다. 양측은 정치공동체가 통일성 있는 정체성을 구성하기위한 공동의 서사를 공유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고국을 향한 두 번째 탈출이 이어진다. 학병세대의 항일무장투쟁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귀국한 학병세대에게 감시와 투옥이 이어지자 월남을 선택하게 된다. 일제말기 조선의 최고 지식인집단에게 공산주의는 지식이었다. 지식으로서의 코뮤니즘이 현실화 될 때 나타나는 변수가 합리적 근대성을 거스를 때 내·외적 갈등이 일어났다. ‘연안’으로 갔던 학병들이 북한에서의 감시와 적대를 피해 월남한 후 남한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때, 그들에게 주어진 공론장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정치적 공동체의 공동의 서사를 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 주제어: 학병세대, 조선의용군, 공산주의, 근대성, 공론장, 정치적 정체성, 자유주의, 해방공간

1. 서론 ; 필연적 탈출에서 ‘우연, 혹은 운명’의 조우로

일제 말기의 지식청년들의 존재 양상은 태평양 전쟁기의 ‘학병’의 존재 양상을 통해 추론된다. ‘학병’은 식민지 말기에 일제의 태평양전쟁에 지원병의 형식으로 동원되었던 대학생들을 지칭한다. 일제 말기의 20대 지식청년들이 ‘학병’을 통하여 그 존재 양상이 추론되는 것은 그들이 대부분 학병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며, 학병으로 전선에 배치된 상황에서 해방을 맞이했고 해방된 조국에 병사신분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일제는 전문대학, 대학 예과형식의 (구제) 고등학교, 제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징집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지식계층에 대한 특권의 부여와 관련이 있었다. 신분제에 의한 봉건적인 인제등용을 폐지하고 교육시스템 속에서 엘리트 지식청년을 육성하여 등용하는 것이 근대적 방식이라 판단

했기에 일제의 교양교육시스템은 서구근대지식과 외국어의 습득으로 대표되는 교양에 충실한 교육을 지향함과 동시에 입신출세를 위한 엘리트 코스가 되어갔다. 태평양전쟁이 패색이 짙어지자 특별법을 동원하여 일종의 지식특권층으로서의 대학생들까지도 전선에 동원하였는데, 이때에 조선인 출신의 대학 재학생들과 그해의 졸업자들까지 동원하게 된다.

일제말기 조선인으로서 이 교양교육 시스템 속에서 육성되던 지식 청년은 조선인 학병으로 동원되었던 4385명을 포함해 약 5000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¹⁾ 사실상, 이들이 조선사회의 최상위 엘리트들이었다고 볼 수 있고 조선사회를 이끌어갈 선도 지식세력이 될 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는 ‘학병’의 체험은 이들이 받았던 서구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공통의 교양교육의 내용과 더불어 ‘세대’라는 용어로 그들을 집합화 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들 ‘학병세대’가 전선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귀국했을 때, 해방기의 조선사회의 패러다임은 당연하게도 ‘나라 세우기’였는데, ‘남한의 경우’, 사회의 엘리트 계층으로서의 학병세대가 해방기의 건국을 향한 도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정치적 격동의 중심에 서게 된다.²⁾

학병을 세대로 집합화하는 또 하나의 매개는 바로 ‘서사’에 있다. 이들은 한국의 문학사 속에서 ‘기록문학’³⁾의 범주로 논의될 수 있는 텍스트들 중

-
- 1) 조선인 학병과 관련한 통계는 1.20동지회에서 발간한 『1.20학병사기』에 제시되어 있다. (1.20학병사기간행위원회, 『학병사기』1~4, 1.20동지회, 1987.)
 - 2) 해방 후 남한으로 귀국한 학병들에 의해 ‘학병동맹’이 설립되는데, 학병동맹은 그들의 기관지 『학병』을 창간하고 여운형의 시국론을 비롯하여 건국과 학병의 역할, 사회경제 사상에 대한 논설 등을 실었다. 건국의 방향과 정치적 진로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학병』1,2, 학병동맹본부, 1945,12~1946,2)
 - 3) 기록문학은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독자에게 미적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기존의 문학이 가진 의미가 인간과 사회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진상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록문학은 개인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을 사실적이고 진실성 있게 전달함으로써 역사, 철학, 정치적 통찰을 독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록문학 작가는 개인적 체험이라 할지라도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사건과 사실의 현상과 그 심층을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기록문학은 근대 이후 사회와 정치현상 등이 복잡해지고 개인이 정치적 사건의 진실을 조망하기 어려

상당 부분을 작성했다. 그들이 남긴 텍스트 속에는 일제말, 해방, 전쟁과 분단에 이르는 현대사의 격동의 체험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그 기록문학 텍스트들은 한국 현대사가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입장들과 국가 만들기에 대한 정치적 정신지가 내포되어 있으며 그것은 일제의 교양교육의 커리큘럼에서 비롯된 근대와 근대국가에 대한 동양적 지향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으로부터 배운 것으로 해방된 ‘조선’이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끔 역할해야 하는 내적 모순을 지니고 있었던 일제말의 유학세대의 내면은 내적 콤플렉스와 더불어 서양근대를 이상으로 하는 의식세계를 바탕으로 국가의 회복과 재건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학병들의 체험으로 구성된 기록문학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일제말기 최고엘리트 지식인들의 정체성을 조명하고 그들의 글쓰기를 고찰하는 것에서 학병들의 해방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⁴⁾ 이러한 연구들 중에 일본 병영을 탈출하여 항일활동을 했던 탈출 학병들의 수기 텍스트에 대한 고찰들의 경우, 공통점은 중경으로 탈출하여 임시정부와 광복

위저감에 따라 중요한 분야로 부상했다. 다큐멘터리, 르포문학과 뉴저널리즘 문학, 논픽션, 자서전과 수기 등을 포괄하는 기록문학은 한국문학에 있어서 그다지 조명 받지 못했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기록문학은 일제말기 학병출신자들에 의해 대부분이 생산되었다. 본고의 텍스트인 두 권의 『탈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주목받지 못한 부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유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4)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7.

최지현, 『학병의 기억과 국가』, 『한국문학연구』32,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2007.

이혜령, 『해방(기): 총 든 청년의 나날들』, 『상허학보』27, 상허학회, 2009.

최영욱, 『해방 이후 학병 서사 연구: 학병의 ‘기억’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조운정, 『전장의 기억과 학병의 감수성』, 『우리어문연구』40, 우리어문학회, 2011.

류시현, 『태평양전쟁 시기 학병의 ‘감성동원’과 분노의 기억-학병수기집 『청춘만장』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52, 2012.

김건우, 『월남 학병세대의 해방 후 8년-학병세대를 연구를 위한 시론』, 『민족문학사연구』57, 민족문학사학회, 2015.

학병세대 전반에 대한 이러한 연구 외에 학병출신 작가(주로 이병주)의 작품이 학병세대의 존재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작품, 작가론 연구가 다수 있다.

군에서 활동했던 학병들의 기록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 정부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했다고 했을 때,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에서 활약하고 미군과의 연합작전까지 함께했던 광복군 출신의 학병들이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방직후 학병동맹을 통해 건국의 과정에 적극적이었던 학병집단과 광복군 출신의 학병들이 귀국하여 건국의 과정에서 제몫을 하고 있을 때에 이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던 학병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중국전선에서 일본군 병영을 탈출해 중국 공산군 점령구로 들어가게 되었던 학병들이다.

당시 중국 공산군, 즉 신사군이나 팔로군 산하에는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이 편제되어 있었고, 일군을 탈출하여 공산군 점령구로 들어간 한적병사들은 조선의용군으로 편입되었다. 조선의용군은 한국광복군과 더불어 양대 진영을 대표하는 독립군이다. 조선의용군이 공산주의 노선을 걷는 독립군 부대였기 때문에 남한에서 이들의 독립투쟁 역사나 활약상에 대해 외면하거나 주목하지 않았던 탓으로 의용군, 즉 연안으로 간⁵⁾ 학병들에 대해서도 주목하기 어려웠다. 특히 연안행 학병들이 전선에서 해방을 맞이한 후 의용군 부대를 이탈하여 개별적으로 귀향한 경우가 다수였는데, 이들이 조선의용군에서 이탈한 이유가 부대의 정치노선과 조직운영에 대한 불만과 부적응이 많았으므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인식되기도 어려웠다. 때문에 북에서는 북에서대로 의용군을 이탈한 반동지식인으로, 월남한 이후 남한에서는 남한에서대로 좌익 의용군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파란만장한 경험을 공유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⁶⁾

5) ‘연안’이 중국 공산주의, 더 나아가 아시아 공산주의의 근원지이자 본거지라고 할 수 있고 조선독립동맹의 본부가 있었던 곳이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던 조선독립단체와 조선의용군을 상징적으로 ‘연안’으로 지칭하기도 하므로 본고는 그러한 상징성을 사용해 보았다.

6) 신상초의 경우 그의 탈출 수기는 1966년에 출간되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신상초의 탈출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유주의에 대한 자신의 지향과 의용군과 북한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거부감이 남한사회를 의식한 면이 있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출간된 엄영식의 탈출기에 등장하는 신상초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서의 모습과 신상초 자신의 기록에서 이야기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반공이 국시였던 시절의 수기에서 신상초는 강도 높은 공산주의 비판을 통해

이제 광복군 학병의 기록들에 비해 주목받거나 관심받기 어려웠던 연안 행 학병들의 수기 텍스트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학병들의 지향과 의식의 어느 지점에서 조선의용군의 노선과 행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근대 서구 사상으로 구성된 학병세대의 정신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탈출하여 도달한 그곳이 국민당군의 점령지가 될지 신사군의 점령지가 될지는 순전히 우연으로 결정되는 것이었다. 조선인 학병으로서 일본군영을 탈출하는 것이 내적 필연성에 의한 것이었다면, 광복군이 되느냐 의용군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우연, 혹은 운명적인 사건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우연, 혹은 운명적 사건에 대한 기록문학이 ‘탈출’이라는 제명 하에 두 편이 나와 있다. 신상초와 엄영식은 각각 『탈출』⁷⁾이라는 수기를 출간하였다. 두 사람은 평북 정주가 고향으로 신상초는 일본 도쿄제국대학에서 법학을, 엄영식은 와세다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했다. 일제가 태평양전쟁 말기에 병력보충을 위해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악용하여 조선인학병지원제를 실시하고 이들을 강제적인 지원, 사실상의 징집을 통해 중국 서주지역의 부대에 배치한다. 둘은 각기 다른 부대에 배치되었고, 이후 비슷한 시기 병영을 탈출하여 신사군 점령지로 가게 된다.

신상초와 동료 학병들이 탈출하여 신사군 4지대의 조선독립동맹 화중분맹에 편입되어 있는 동안 엄영식과 동료들이 탈출하여 화중분맹에 합류하게 되어 서로가 만나게 된다. 평북 출신의 두 학병이 우연히도 같은 부대에서 공통의 경험과 공동의 시간을 보내고 수기를 남겼다. 이들의 텍스트는 같은 시공간의 경험에 대한 각자의 기억과 해석이 있으면서도 의용군과 학병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화중분맹에서 조선의용군의 근거지인 태항산 군정학교까지의 장정의 과정, 그리고

자신의 사상검증을 의식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비해 2000년대에 출간된 엄영식의 수기에서 중국공산군과 의용군 지도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나타나는 것은 시대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수기 간의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기억’과 ‘심리’, ‘검열’의 영역으로서 본고에서 함께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별개의 과제로 다루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간극과 기록물이 출간된 시대적 상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두 텍스트의 ‘공통의 기억’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7) 신상초, 『탈출』, 녹문각, 1966. 엄영식, 『탈출』, 아스미디어, 2005.

이후의 북만주로의 이동을 대부분의 학병들이 함께 공유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기록은 의용군 내의 학병들의 기록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 본다. 본고는 이 두 텍스트를 중심으로 당대 조선최고의 엘리트 지식인 청년들이 코뮌니즘을 대하는 방식, 그들의 국가에 대한 지향 등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2. 조선의용군과 탈출학병의 항일투쟁

‘연안’으로 간 학병들은 중경행을 미리 계획하고 탈출길에 올랐던 김준엽과 같이 목적의식적으로 탈출길에 올랐던 것이 아니었다. 탈출하고자 하는 신념을 가진 학병에게 자신이 뛰어들 곳이 국민당군 점령지이나 중공군 점령지이나가 중요하지 않았다. 공산주의나 자유주의나라는 이념에 대한 고민보다 탈출학병들에게 있어서는 예측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국가의 해방이라는 민족문제가 더 우선이었던 것이다.

일본군이 1938년 서주를 점령했다고 해도 그것은 서주 시내와 서주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은 용해선, 진포선 등의 철도와 자동차 도로일 뿐이었고, 이 점과 선에서 10리만 오지로 떨어지면 공산군 또는 국민당의 거점이 있는 소위 적구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내가 육군병원에서 처음 서주 시내로 외출했을 때 만났던 주민들에게서 들었기에, 나는 공산군 토벌대에 참가하여 공산군의 실체를 보고 싶었고 전투의 양상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일본군 병영을 탈출한다면 국민당이나 공산군의 포로가 되어 원수인 일본군과 싸워야 하겠기에, 더욱 공산당군대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다.⁸⁾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동해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공비토벌』의 응원 부대로 동원되었다. 이 응원작전은 불과 이틀만에 끝났다. 근 오백명의 병력이 완전무장을 갖추고 철도 연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쳐들어갔지만 공비는 고사하고 사람의 그림자 하나도 구경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나는 그 공비라는 것이 중공의 신사군을 가리킨다는 것, 그리고 신사군의

8) 엄영식, 『탈출』, 야스미디어, 2005, 57쪽. (이후 인용은 인용문 말미에 저자명과 페이지수만 기록함.)

근거지가 철도 연변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⁹⁾

그렇다면 이들이 탈출하여 뛰어 들어간 신사군 점령지구와 조선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은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 중국 내의 한인 독립운동 단체는 활동지역의 특성상 중국당국의 지원과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광복군이든 의용군이든 중국 정규군 군관학교를 통해 독립군 인력을 양성했는데, 각 진영 지도부 산하의 광복군과 의용군은 중국 당국에 의해 중국군 산하 군사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광복군의 경우 해방직전이 1945년 5월에 중국군의 통제에서 벗어나 임시정부의 통수권 하에 들어갔지만, 조선 출신의 공산주의자들이 결속한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조선의용군은 대개가 중국공산당 당원이기도 했으므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노선에 따라 항일투쟁과 공산혁명 투쟁을 같은 선상에 놓고 연합하고 있었다. 팔로군의 포병단장이었던 조선인 출신 무정이 조선의용군 사령관으로 취임하면서 팔로군과의 의용군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다고 볼 수 있다.¹⁰⁾ 따라서 중공군 관내로 들어가는 탈출 학병들은 자연스럽게 의

9) 신상초, 『탈출』, 녹문각, 1966, 94~95쪽. (이후 인용은 위와 동일하게 표기함.)

10) 엄영식, 107~114쪽 ; 김광재, 『조선의용군과 한국광복군의 비교 연구』, 『사학연구』84, 한국사학회, 2006 참조.

이러한 밀접성은 해방후 의용군이 팔로군을 따라 중국의 국공 내전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신상초, 엄영식을 비롯한 학병출신의 의용군들이 부대를 이탈하여 개별적으로 국경을 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국의 국공내전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제5지대는 학도병 출신으로만 조직되었으니 지금 혼탁한 조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욱 실력을 양성하면서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조국으로 쳐들어가서 혁명을 완수시킨다는 것이었다. 혁명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말대로 조선의 혁명은 역시 총으로 해결될 것이며, 제5지대가 바로 그 임무를 감당해 내야할 정예부대라고 하였다. 나는 이와 같은 정보를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원래 봉천에서 조선 독립동맹을 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우리부대가 고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간도로 간다고 하기에 이곳까지 왔던 것이다. 그런데 부대가 해방된 조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공산주의 혁명을 실현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또다시 만주땅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내 자신 스스로 무덤 파는 일에 더한층 깊숙이 빠져드는 셈이었다.” (엄영식, 195)

용군으로 편입되었고,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학습을 받았다.

1945년 무정의 보고에 의하면, 태항산 군정학교의 경우 293명의 학생 가운데 대학생 출신이 20명(7%), 중학생 출신이 82명(28%), 소학교 졸업생이 76명(27%), 농민 출신 20명(7%), 노동자 출신이 26명(9%)이었으며 나머지(22%)는 도시빈민, 소상인, 직원 출신이었다.¹¹⁾

우리가 탈출해 들어온지 며칠 만에 또 한국 학병 세 명이 탈출해 들어왔다. 현지 부대 소속은 달랐지만 평양 42부대에 같이 입대했던 엄, 심, 방 등 세 친구였다. 몹시도 반가웠다. 그들도 우리에게 못지 않게 친신만고 끝에 탈출해 들어온 것이다. 그후 학병 중 탈출해 들어오는 자는 계속 증가하여 그 해 8월말에는 15명에 달했다. (신상초, 111)

우리에 앞서 이미 많은 조선 학도병들이 일본군 부대를 탈출하여 이곳에 와 있었으니, 그들은 우리를 보자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맞이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서주에 집결했던 학도병들이었는데 서주 부근에 자리잡고 있던 숙현, 회음 등의 일본군 주둔지에서 용감히 탈출한 학도병들이었다. 그리고 서주 부근에는 평안북도 출신의 학도병들이 대종을 이루었기에 대부분의 학도병들은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던 터였다. 그들 중에는 고향 친구인 신상초를 비롯하여 한명삼, 방휘제, 심영순, 박항구 외에도 20여 명의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한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엄영식, 100)

위의 인용문들과 같이 공식적인 기록과 신상초와 엄영식의 수기 내용으로 추론해 보면 조선의용군 내에 20여명의 탈출 학병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준엽은 『장정』(1)에서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반에 탈출한 학병들이 33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¹²⁾ 광복군에 비해 수가 적긴 해도 20여

“내가 일군에서 도망쳐 중공에 뛰어들어 오랫동안 밥을 얻어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밥값 대신으로 내 자신 몸을 중국 내전의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부대를 이탈하여 하루 속이 만주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가장 현명한 방도라는 결론을 얻고 탈주할 수 있는 호기가 오는 것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신상초, 175-176)

11) 김광재, 『조선의용군과 한국광복군의 비교 연구』, 『사학연구』84, 한국사학회, 2006, 208쪽.

12) 김준엽, 『장정』1, 나남, 1989, 343~344쪽. 한국광복군에서 활약한 탈출 학병들에 대한 기록과 그들의 활약에 대한 평가에 비해 의용군으로서 항일투쟁을 했던 탈출 학병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과 정당한 평가가 뒤따르지 않았

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수가 아니다. 이 20여명의 지식인 엘리트 병사들은 일어에 능통한 것은 물론이고 중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재원들이었다. 이들의 활동은 일제 항복 전에는 선전활동, 항복 이후에는 교민보호활동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의용군이나 광복군이나 인적 구성은 소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중에 학병출신들로 구성된 고헌력 집단은 중국 병사들이 할 수 없었던 일본인 포로 심문이나 일본군 병사들과 일본군 점령구역에 대한 무장선전활동, 군정학교 내의 학생들에 대한 정치학 이론 강의, 신문발간, 정치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¹³⁾

다. 본고에서 다루는 저자들의 수기를 통하여 인적 구성과 항일 활동에 대해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 13) 무장선전활동은 학병들이 의용군에 유입되기 이전부터 조선의용군의 주된 활동이었다. 조선의용군의 전신인 조선의용대에서부터 선전공작을 중요한 임무였다.

“조선의용대의 선전공작은 일본군 병사들에게 일제가 반드시 패한다는 이치를 선전함으로써 반전의 정서를 부식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킴과 아울러 적국의 투항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또한 활동지역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항일투쟁의 목적과 적극적인 한국독립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작업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조선의용대원들은 선무공작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공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들의 활동은 중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선의용대는 『조선의용대통신』 등을 발간하여 조선독립의 현실과 그 정당성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한국광복군도 기관지 『광복』을 발간하여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김주용, 『1940년대 항일무장단체의 실상』, 『동국사학』 43,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07, 277~278쪽.)

의열단 활동으로부터 조선의용대(군) 활동까지의 과정을 고스란히 겪은 김학철의 자서전 『최후의 분대장』에는 팔로군과의 연합작전은 거의 대개가 적 점령지구 내에 침투해 조선의용대원들이 각종 전단이나 선전물을 부착 배포하는 동안 팔로군은 적으로부터의 공격에서 보호하는 임무를 띠었다고 적고 있다. 김학철을 비롯하여 중국정규군 군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조선의용대원들이 이미 학생신분이거나 학교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어로 선전공작을 해야하는 일에 적합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군에 일어를 할 수 있는 병사들이 거의 없었고 중국병사들 끼리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의용대원이 중국어 통역을 하였다라는 에피소드가 등장하기도 한다. 44년 이후 유입된 학병들의 경우, 이러한 선전공작에 적합한 인재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상에 정통한 지식인들이었기에 정치부원, 사상학습 교재와 신문 제작 등의 활동이 맡겨지기도 했다. (김학철, 『최후의 분대장』, 문학

신문제호는 「독립신문」이라 하고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기로 했다. 나는 신문을 편집하는데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통일 전선 기관지답게 공산주의 색채를 되도록 띠지 않게 하는 것, 둘째 국제 정세로 보아 일본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게 하고 한국의 독립 정신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제작한 신문은 주로 중공의 비밀 공작원을 통해서 일본 점령 지구내 교포들이 많이 사는 곳에 뿌리거나 혹은 배달된다. 발행 부수가 천부를 넘었으니 이를 받아본 교포도 적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신상초, 117-118)

때로는 함화(喊話)공작이라하여 밤중에 외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일본군 토치카에 접근하여 일본말로 병사들에게 염전(厭戰)사상을 갖도록 스피커로 소리치는 선전공작을 하기도 하였다. 내가 작성한 선전물이 서주 거리에 부쳐지고 내가 쓴 편지가 일본군 병영으로 배달되어 누군가에 의해 읽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제 내가 진정 독립운동의 일환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기도 하였다.(엄영식, 122)

전선에서 해방을 맞이한 학병들은 후에는 일군 잔당과 중국의 지방군벌 잔당들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적전투와 치안유지도 전개하였다. 당시 중국의 만주 지역에는 한인들이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민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농민은 일제가 물러감에 중국 사람들의 습격을 받지 않을까, 전전 공공하고 있었다. 일제는 분명히 침략자요, 압박자이지만, 대만정책상 만주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한 회유정책을 쓰고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었다. 또 만주 원주민보다 낮게 물자 배급을 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해방 후 만주에서 교포들과 중국인 사이의 갈등·대립·충돌이 벌어진 기본 원인이었다. 중국인은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다가 괴뢰 만군에 가담하여 친일을 일삼던 자들이 부랑배를 모아 혼란의 틈을 타서 무장비족으로 화했고, 약탈을 자행했으니 비족들이 어떤 권력의 보호도 받지 않았고 자위 조직이 미약했던 교포들의 농촌을 약탈의 좋은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므로 교포들이 비록 초라한 무장일망정 불의의 습격자를 막아낼 만한 능력을 갖춘 한인 부대를 환영하였다는 사실은 그 생활상 절실한 요구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가 이 부락에 분산 유숙하고 있는 동안, 가끔 원방에서 총소리를 들은 일이 있었으나, 비족들은 이 부락 근처에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우리는 시위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저녁 해질 무렵이면 대오를 정비해서 그 부근 일대에 흩어져 있는 교포 부락을 순회하면서 한인 부락의 자위 조직이 매우 강

하다는 인상을 주느라고 애썼다. (신상초, 157)

광복군이 연합국과의 군사합작이나 공동작전 등을 수행하는 성과를 보였던 것과는 상대적으로 의용군은 무장선전활동과 적구에서의 함화공작 등을 중시함으로써 중국의 현지 민중들이나 한인교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그런 과정에서 일군 잔당이나 비적과의 실전과 같은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이런 활동은 탈출학병의 의용군 합류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펼쳐졌던 항일 활동이기도 했다. 한인교민 보호를 위한 대적진투 과정에서 교민들과의 교류가 생성되고 이것이 이후 학병들이 고국을 향해 의용군을 이탈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행정과 치안이 공백이 된 상황에서 의용군이 중국내 한인들과 중국 인민들을 보호했던 활동은 이념과 관련하여 그 저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는 별개로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상초와 엄영식의 수기를 통해 해방 후 만주 지역의 한인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각계 분야와 각종의 한인들, 심지어 일제 협력자까지도 의용군에 합류하여 독립군의 대오 속에서 귀국하기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만주지역의 특성상 공산주의 노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한인들의 시각에서 의용군에 입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던 것이다. 일본이 패망할 즈음의 의용군의 숫자가 천명에 달했다는 데에서 당시 중국 화북지방의 한인들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¹⁴⁾

공산주의가 폭넓게 공유되고 있었던 한편으로 공산주의에 비판적인 민족주의적 종교인들이 의용군을 이탈하여 두만강을 건너는 학병들의 조력자가 되어주기도 했는데,¹⁵⁾ 간도 지역의 민족주의 성향의 종교인들이 후일 남한에서 진보적인 지식인 집단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3. 공산주의 노선 속의 지식인의 존재론

14) 김광재, 앞의 논문, 216쪽 ; 신상초, 158

15) 신상초, 182 ; 엄영식, 200~201.

일반적으로 지식인은 가치체계에 의존해서 참여하고 또 참여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를 가치체계에서 찾는다.¹⁶⁾ 40년대의 일본 유학 지식인 청년들에게 공산주의는 지향하는 가치체계는 아니었다. 학병세대가 가진 공통의 의식세계가 근대일본의 교육제도에서 발아한 ‘교양주의’에 토대한다고 할 때, 40년대의 학병세대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3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정리되기 시작한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에서 선회한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학문적인 해명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탄압, 그에 따른 대대전인 전향이 이루어지고 난 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40년대의 지식청년들에게 마르크스주의란 철학이나 사회과학의 일종이었지 세계변혁을 위한 신념체계가 되거나 식민지 해방을 위한 방법론이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교양주의 교육시스템에서 구제 고등학교 학생들의 독서수준은 상당했는데, 대부분의 학병세대가 이 교양주의 교육시스템 속에서 접했던 공통적인 커리큘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서구근대사상들이었다.¹⁸⁾ 서구적 근대성과 합리성을 학병세대 의식의 근간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들이 받은 교육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학병세대가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을 전공 학문을 수학하기 이전에 갖추어야할 서구근대사상 중의 하나인 교양학문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당시 구제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경향을 기술한 신상초의 다음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16) 파스칼 오리 · 프랑수아 시리넬리, 한택수 역, 『지식인의 탄생』, 당대, 2005, 79쪽.
- 17)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7, 118쪽.
- 18) 쇼와(昭和)시대의 교양교육의 특성과 제도, 당대 지식인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일제의 교양교육이 모델로 삼았던 것은 19세기 초반의 독일의 교양 이념과 교육제도이다. 김윤식, 위의 책. ; 노현주, 『이병주 소설의 정치의식과 대중성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2012. ; 이향철, 『근대 일본에 있어서의 「교양」의 존재형태에 관한 고찰』, 『일본역사연구』13, 일본사학회, 2001. ; 허병식, 『교양의 정치학-신체제와 교양주의』, 『민족문학사연구』40, 민족문학사학회, 2009.

문과생들끼리 조직한 철학연구회에 드나드는 동안 칸트나 헤에겔 등 난해한 독일 관념철학의 문헌을 거의 의무적으로 읽어 보았다. 그리고 불어를 전공했던 탓으로 데카르트나 벨구손, 알란 등의 작품에 손을 대게 되었고, 또 벨구손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니이체, 하이데거, 야스퍼스 등 생의 철학, 실존 철학의 계보에도 발을 들여 놓았다. 관념 철학에 대한 반대 견해를 알기 위해 후오이엘바하의 저서, 그리고 마르크스의 도이치이테올로지, 레에닌의 철학 저작 등도 읽어 보았다. 관념철학, 실존철학, 유물론에 관련되는 주제를 읽어 보면서 대체 어느 정도로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가는 지금 생각해도 의문이지만 「데칸쇼(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엘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말), 데칸쇼로 반년을 지나고 나머지 반년은 자면서 지낸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고교생들의 독서의 기본적인 자세였으므로 대체 칸트나 헤에겔이 어렵다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알기 위한 탐구심에서 그렇게 독서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3.1운동의 진상을 안 나는 정치니, 역사니 하는데 대해 새로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방면의 책을 많이 읽어 보게 되었다. 이 해 가을과 겨울에 거쳐 나는 랑케의 세계사며, 기조의 문명사, 그리고 모로아의 영국사, 카라일의 프랑스 대혁명사, 시남원충응의 「제국주의하의 인도」 같은 저작을 각별한 흥미를 갖고 읽어 보았다. 그리고 정치학 관계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로크, 루소, 밀, 힐그린, 몽테스큐, 토크빌, 브라이스, 레에닌 등의 저작을 꼼꼼이 읽어 보았다. (신상초, 28~30)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학병세대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감각은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용군 내의 학병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공산주의를 학문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사람과 수많은 변인에 의해 형태와 적용이 달라지는 현실 공산주의에 대한 감각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팔로군과 조선의용대에서의 시간들 속에서 이들은 공산주의가 세계사의 흐름이라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갈등하는 정도의 현실에 대한 순진성을 보이기도 한다.

한사코 중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경파 동지들이 있는가 하면, 신상초 등은 전쟁 후에는 세계의 흐름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주류를 이룰 것이니 이곳도 겨레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한 조직이기에 여기서 우리 민족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같이 학도병 출신들은 사상적으로 완전히 둘로 갈라져 있었다고 하겠다. 이밖에 성격이 부드럽고 성실하며 매사에 꼼꼼한 한명삼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도병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사상적으로는 이곳에 찬성하지 않으나 일 본군을 도망한 몸인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기다려 보

자는 관망주의자들이었다.

이미 나의 운명은 혁명의 길로 접어들었으니, 민족과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하고자 할 뿐이었다. 그리고 민족을 배반하지 않고 조선사람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 오직 공산주의의 길이라면, 공산주의를 배반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이 공산주의의 길 같지가 않았다. (엄영식, 104, 163)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민족을 위한 길이라면 따라야 하지 않을까라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만약 조선의용군 내에 이 지식인들의 존재론을 뒷받침해줄 요소들이 충족되었다면, 공산주의의 가치체계가 근대의식으로 무장한 학병들에게 논리적인 정당성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이들은 의용군으로서 조국에 돌아왔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병들이 조직의 노선인 공산주의를 수용하기 어려웠고 거기엔 정치적 근대성과 관련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 조선독립동맹이 대외적으로 표방한 통일전선정책에도 불구하고 정풍운동 등을 통해 사상개조를 강요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각종 계급계층이 섞여있고, 무산자를 우대하는 분위기의 공산주의 조직 내에서 자기비판, 상호비판이라는 행위는 자의식이 강한 지식인이 받아들이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진 문화자본과 지식자본이 학병들의 자의식의 커다란 배경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문화자본, 지식자본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결여된 공산당 조직의 분위기를 감내하기 어려운 것은 자연스럽다.

정풍운동이란 정돈삼풍(문풍, 학풍, 당풍) 운동을 가리키는데, 쉽게 말해서 사상개조 운동이요, 공산주의 세뇌공작이다. 모가 저작한 문헌이나 당중앙이 내린 정풍 운동의 지시 문헌을 기준 삼아 학습반 단위로 자기비판, 상호 비판을 전개하여 사상 의식을 공산주의화하고, 사고방식을 모택동화하라는 것이다. 남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알고, 자유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자에게는 이 이상 더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었지만 때마침 거당적으로 정풍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라 우리들만이 여기서 빠져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신상초, 125)

항일군정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정풍운동이었다. 정풍운동이란 소위 사상 개조작업이다. 다시 말해 알찬 공산주의 혁명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운동은 당시 중국 공산당이 일본의 패망을

앞두고 모택동의 지시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전개된 운동이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과거의 자기 생각과 행동이 대중의 입장에 서서 혁명운동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 비판하고 나아가 동지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었다. 또한 현재의 자기 생각이나 행동에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어, 혁명정신을 흐리게 하지 않나 하는 것을 근로대중의 입장에서 자신을 비판하고 동지들로부터 과오를 지적받는 것이었다. 누구나, 특히 인텔리는 원래 과거 자기의 잘못을 대중 앞에서 자신이 폭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할뿐더러, 자신의 잘못을 타인으로부터 정면으로 지적받는 것은 더욱 못 견디는 것이다. 그러나 항대 학생인 우리에게선 선택의 자유가 없었으니 우리는 한 사람씩 차례로 먼저 자신의 과거 생활을 반성해야 했고 따라서 동지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했다. 그러니 총을 들고 일본군과 싸우고자 일본 병영을 탈출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자신의 과거 지낸 일들이나 이야기하고 또 동지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하는 이 정풍운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할 리가 없는 것이었다. (엄영식, 114~115)

근대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학병들에게 비판없는 사상의 수용, 즉 낡은 것과 새로운 것, 합리와 비합리를 개선할 수 있는 토론의 부재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다가왔다. 공동체와 조직에 대해 객관적 거리를 가지고 논쟁할 것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바로 근대사회가 갖추어야 할 ‘공론장’이다. 근대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차원으로 거론되는 요소들 중의 하나는 바로 이 ‘공론장’이다. 공론장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을 토론하며 그에 관해 공통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며, 어떤 ‘정치적인 것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적 논쟁으로부터 도출된 성찰적 관점’이 ‘규범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외적인 역할이 공동체를 정당화시킨다. 공동체의 낡은 통일성이 사라지고 공통의 의견으로서의 새로운 통일성을 구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론장 안에서는 당파성이나 개인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부정성의 원칙’이 필요하다.¹⁹⁾ 공론장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여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서의 가치 체계로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

공론장의 부재에서 느끼는 고통은 일제가 패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조선의용군이 태항산으로 집결하여 대원들이 군정학교의 각 분대에 재배치되

19) 찰스 테일러, 이상길 역,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음, 2011, 133~153 참조.

면서 더욱 심각해진다. 함께 하고 있던 동료 학병들이 뿔뿔이 흩어져 새로운 분대에 사병으로 편입되어 새로운 자기비판의 엄격한 조직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단순히 공론장의 부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이 문제가 된다.

『군정학교』에 도착한 우리들은 간부들의 초대연을 받은 다음날로 뿔뿔이 헤어져 각 분대로 편입되었다. 공산당원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사병으로 편입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북상하여온 학병 출신들은 자유주의 사상이 농후하고 반동적으로 논다하여 각 분대에 한 명씩 배치되었다. 여기서부터 나의 참을 수 없는 치욕적인 생활이 시작되었다.

규칙생활은 심히 엄격하고 이를 어기면 자기 비판을 강요당하고, 자기 비판을 하지 않으면 소위 『투쟁대회』에 끌려 나와 한 바탕 욕설을 먹어야 하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영창에 갇혀야하고, 사상 개조의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보이면 『반동분자』니, 『일제주구』니 하는 낙인이 찍혀 투옥을 당하든지, 사형을 당해야 했다. 인간 정신의 타락을 강요하는 치밀한 밀고 제도 속에서 엄중한 감시를 받으면서 나 같은 자유주의자가 살아나간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생활하려니 나는 부자유에 질식을 느꼈다. 또 밤은 밤대로 풋내기 분대장 밑에서 무식한 자들 틈에 끼여 토론이다, 비판이다, 하는 것을 전개하려니 정신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일군에서의 병정 생활이 육체의 생지옥이라고 하면 여기서의 병정 생활은 분명히 정신의 생지옥이었던 것이다. (신상초, 144, 145, 147)

조직 내에 있으면서도 그 조직에 대해 객관적 거리를 가지고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론장의 역할이고 매력이다. 개인에 대해서도 그것이 객관적인 언어를 갖춘 합리적 비판일 때 받아들이기 쉬워진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감시, 자기비판 등은 이들 지식인 집단에게 모욕감으로 다가왔다. 자기비판회를 통해 조직 내에서 사상의 깊이와 질서를 증진시키고 공산주의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수치심을 이용한 처벌이 강한 억제력을 가져온다는 믿음’에 기반한다.²⁰⁾ 그러나 수치심을 이용한 억제는 특히 근대지식으로 무장된 학병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를 긍정하는 것과 다양성과 상호존중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근대정치의 정신이며,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상이 학

20)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414-415 참조.

병세대가 공유한 가치체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¹⁾

서구의 지식사회의 역사를 살펴보다라도 지식인들이 코뮤니즘을 외면하게 되는 이유도 ‘공론장’의 부재와 연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의 개혁과 변혁이 근대사회의 지식인들의 공통적인 지향이었을 때 코뮤니즘만큼 매력적인 사상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인으로서 공산주의자가 아닐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나올 정도로 지식인들을 매료시킨 코뮤니즘이 외면을 받게 되는 지점은 명확하다. 바로 조직의 볼셰비키화이다. 볼셰비키가 상징하는 독재가 회의와 외면을 가져오는 것이다. 파시즘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의 볼셰비키화를 공론장을 폐쇄하는 독재로 해석하기 때문이다.²²⁾ 결국 지식인들이 정치적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지지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가치체계의 소통이 가능한 공론장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중공군 내에 편제된 조선의용군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공산주의 노선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의용군은 어느 전선에서든 항일, 즉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것이 각 민족의 독립운동보다 앞서는 가치라는 의식을 어느 정도 공유한 집단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패망 이후에도 중국전선에서 일제 잔당 소탕, 국민당군과의 대립 등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공산주의에 대한 현실적 지향이 애초에 없었던 학병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조선의용대(군)은 성립 초기부터 국제의용군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특

21) 자유주의를 학병세대 전반의 의식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는 본고의 텍스트가 되는 수기내용에서 분석해 오기는 어렵다. 수기의 특성 상 경험과 그에 관한 회고와 회한이 대부분의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학병세대의 의식으로서 자유주의와 근대지향의 정치사상을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학병세대가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1960년대의 지식인 사회의 정치적 지향의 큰 줄기가 자유주의와 (서구적)근대지향이었다는 것에 기반한다. 학병출신의 지식인들이 주축이 된 『사상계』에 실린 ‘자유’, ‘민권’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좌담과 논고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22) 파스칼 오리 · 프랑수아 시리넬리, 앞의 책, 129쪽 참조.

히 일본인 아오야마의 국제의용군 건립안은 군대건립이라는 조선인의 소망은 수용하였지만 독립성과 자주성을 견지하려 했던 민족전선연맹, 민혁당 청년당원들의 염원과 는 거리가 멀었다. 자주성과 독자성의 결여는 대조직의 첫 번째 임무인 군사기술, 전략 전문분야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중국군사위원회의 지휘하에 각 전구에 배치되어 한중 연합부대의 성격을 띤 조선의용대는 중국과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군대’의 실질적 모습은 변형된 수직적 형태였다. 조선의용군은 설립 당시 대적 전투보다는 선전활동에 치중함으로써 한중 민중에게 합작 노력은 신뢰 쌓기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²³⁾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조선의용군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노선에 충실했다고는 하나 중국전선에서 일제에 대항하여 반제국주의 전투를 벌이면서 목표로 했던 것은 조선의 해방, 즉 국가의 회복과 재건일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학병들이 탈출해서 조선의용군이 된 것 또한 조국의 해방과 국가 건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조선의용군의 노선과 학병들 사이에는 집단이 공유하는 정치적 정체성의 교집합을 찾을 수 없었다.

집단의 정치적 정체성은 그 집단이 형성하는 서사, 혹은 역사에서 만들어진다. 국가의 회복과 재건, 조선이라는 혈통을 바탕으로 한 국가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집단적인 정치적 정체성’²⁴⁾이다. 단순히 공산주의 이념을 정치이념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집단적인 정치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의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망국이나 식민지배의 과거의 서사로는 미래지향적인 공동의 정치적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의열단에 기원을 두고 줄곧 중국군과 함께 무장투쟁을 지향했던 조선의용군이 항일선전활동이나 대적투쟁 등의 전투를 통해 쌓아간 것은 다름 아닌 공동의 서사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38년에 결성된 조선의용대(군)가 전쟁의 막바지까지 형성해간 정치적 정체성과 항일의 서사들은 태평양전쟁 말기에 중국 전선에서 새롭게

23) 김주용, 『1940년대 항일무장단체의 실상』, 『동국사학』43,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07, 281쪽.

24) 티모시 브레넌, 『형식을 향한 국가의 열망』, 호비 바바 편, 류승구 역, 『국민과 서사』, 후마니타스, 2011, 97쪽.

합류한 학병들이 공유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데 있다. 항일과 해방을 향한 소박한 행동주의로 결합되기엔 학병들이 가진 지식인 특유의 자의식이 너무 심오했기 때문이다. 사상개조를 위한 학습 등의 과정, 당원 중심으로 구성되는 지도부, 선택과 결정이 거부되는 현실 등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인해 항일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의용군이 가진 정치적 정체성과 거기에 내재한 공동의 서사를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리고 학병들의 비판의식에 대한 의용군 지도부의 배타적인 분위기는 함께 공동의 서사를 만들어갈 가능성도 갖기 어렵게 했다.

의용군의 조양천 공작 임무가 하달되었는데, 간도에서 새로이 의용군들을 모집하고 훈련시켜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정말로 언제 귀국할지 모르는 일로서, 만주가 국, 공의 전쟁관이 되면 우리는 자연 팔로군으로서 국민당군과 싸워야 될 것이니, 고향으로 돌아갈 길은 더욱 암담해지는 것이었다. 조양천에서 나는 그 지방 자치위원회의 요청으로 때때로 차출되어 조양천 외곽지대에서 보조 임무를 맡았다. 눈이 필뿔 내리는 스산한 날씨에 산마루에서 총대를 메고 보조 임무를 서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신체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이 임무가 나와 그리고 내 조국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엄영식, 192)

여기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김학철의 경우이다. 김학철은 서울보성고보 재학 중이던 1936년에 상하이로 망명하여 조선민족혁명당 상해 특구에서 활동하다가 중국의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1938년 조선의용군의 전신인 조선의용대원이 되었다. 조선의용대로서 팔로군 근거지인 태항산에서 항일전투를 벌이다가 1941년 호가장 전투에서 다리에 부상을 당하고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의 자서전 『최후의 분대장』 또한 조선의용대(군) 활동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기상 다른 점은 있으나 같은 조직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학병들과는 다르다. 상기한 바와 같이 김학철의 경우,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을 목표로 중국을 향해 떠났고, 조선의용군으로 항일무장투쟁단체가 집중되기 이전부터의 과정을 겪어왔다. 자서전 『최후의 분대장』에는 의열단부터 태항산 군정학교의 조선의용대까지 함께했던 동지들과의 일화와 팔로군과의 항일활동들이 서술되어 있다. 김학철이 조선의용대(군)과 팔로군과의 공동작전을 바라보는 관점은 향수와 낭만과 자부심

으로 가득하다.²⁵⁾ 김학철과 학병들의 관점의 차이는 바로 공동의 서사가 존재하느냐, 가슴으로부터 공동의 서사에 참여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학병들이 조선의용군과의 공동의 서사를 형성하지 못한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지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신상초와 엄영식의 수기에는 군정대학의 수업과 부대생활에서 벌어지는 코뮤니즘 학습이 학병들의 지식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기에 거부감을 만들어 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것은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는데, 거기에 자신들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반발하여 투표를 통해 지도부를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로 번져나간 사건이 생겨나기도 했다.²⁶⁾ 의용군의 인적 구성에서 소학교 이상의 학생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62%로²⁷⁾, 절반이상의 높은 비율이라 할지라도 역사와 정치적 사건의 본질을 추론하고 간파할 수 있는 학병들의 인식 능력과는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학병들이 공산주의 노선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계급성분과 관련이 있다. 일제 말기에 자식을 고등교육까지 시키고 일본에 유학을 보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재력을 가진 집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신상초와 엄영식을 비롯한 이들의 수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학병들은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가정의 자제들이었다. 지주, 자본가 계급 출신의 인텔리에게 반지주, 반자본가, 프롤레타리아 중심의 공산주의 사상은 그 자신들을 대오에서 소외시키는 내용으로 수용되었을 것이다. 학병들에게 지주, 자본가를 프롤레타리아의 적으로 규정하는 공산주의 노선이 매우 불편한 것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공산주의는 무식한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유주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을 절대로 매혹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 공산

25) 김학철, 『최후의 분대장』, 문학과지성사, 1995, 96~273쪽.

26) 엄영식, 128~130쪽.

27) 김광재, 앞의 논문, 208쪽.

주의자는 인텔리를 싫어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당연한 이론이 있었다. 『공산주의가 프롤레타리아의 이론적 무기라고 하면 그것은 주로 프롤레타리아에게만 팔아먹도록 하라. 지주 출신, 자본가 출신에게 프롤레타리아 이론을 팔아먹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것이다. 하물며 여(汝)들은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이라 외치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공산주의자화하려는 것인가』라고. (신상초, 113)

인용문에는 통일전선을 주창하면서도 정작 다른 계층과 노선에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환멸이 드러나고 있다. 학병들은 자신들을 혁명의 투사로 환대하면서도 지주계급 출신의 자유주의자이며 반동분자로서 감시의 시선을 보내는 그 기만의 대상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이러한 ‘감정적인 수치심의 누적은 정념과 정서의 집합으로서 그 합리성이 완성되는’ 정치적 가치에 대한 지향²⁸⁾으로부터 공산주의 노선을 완벽하게 거두어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4. 의용군 출신 학병의 해방공간

의용군으로서 독립전선에서 활약했던 학병세대의 귀국은 불안하고 고단한 것이었다. 중경행 학병들이 광복군으로서 귀국한 후 각계에 진출하여 사회기반을 형성하는 데에 이바지 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돌아온 고국에서 후자는 ‘민족의 투사’들이었지만, 전자는 대오이탈자, 배신자로 비난받을까 두려워하며 숨죽이고 있어야하는 처지에 놓인다.

나는 살기 위하여 일본군을 탈출했고, 팔로군의 군복을 입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급기야는 생각지도 않았던 조선의용군 대열에 섰다가, 긴 장정 끝에 살아서 고향역으로 다가가고 있건만, 내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가 않고 심난할 뿐이었다. “너는 민족을 배반하고 근로 대중을 기만한 이기주의자요, 자유주의자이다!”라고 매도할 것이 분명했으니, 내가 설 땅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다. (엄영식, 211-212)

조선의용군 내에서 계급성으로 인해 느꼈던 시선의 불편함은 신상초와

28) 상탈 무폐, 이보경 역, 『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2007, 183쪽.

엄영식이 부대 이탈 후 개별적으로 돌아온 고향에서도 이어졌다. 이들의 고향은 평북이었는데, 평북출신의 학병들이 중국전선에서 비슷한 일군 부대에 배치되었던 관계로 의용군 내에는 평북출신의 학병 숫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엄영식이나 신상초가 동료들과 국경을 넘어 돌아간 고향은 소련의 군정 하에 놓인 북한 땅이었다. 고향에서도 공산화의 바람을 타고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지주, 상인들이 따가운 눈초리의 대상이 되었다. 고향에 돌아온 학병들의 집안이 대개가 지주, 부르조아에 속했으므로 학병들도 그러한 눈초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신상초는 “나를 보는 눈초리는 매우 싸늘했고, 또 개중에는 노골적으로 적의를 보이는 자들도 있었다.”(194)고 적고 있다.

학병들의 지향, 즉 일제말기의 최고 학부의 청년지식인들의 지향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다. 그러나 식민지배 하의 조선사회에서 이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국가 건설의 주체되기였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의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어깨에 지고 있던 학병세대에게 만주를 횡단하며 중국의 국공내전 전투를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소명을 거스르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병세대는 기대와 관심을 받는 대상일 수밖에 없었고 그에 대해 부응할 준비와 의지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엄영식의 『탈출』에는 귀향하는 과정에서 소박하지만 새 국가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고, 신상초의 『탈출』에서는 이 지식인에게 기대하는 외부의 바람이 나타난다.

홍남을 지나면서 많은 공장의 굴뚝들이 눈에 들어왔다. 굴뚝들은 싸늘하게 서 있을 뿐, 연기를 내뿜는 굴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공장의 기계를 소련군이 모두 반출해 내간 것이 분명했다. 홍남 일대는 일본이 중화학 공장지대로 만들어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지로 사용했었는데, 해방을 맞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들의 손으로 이 공장들을 잘 가동하여 유복한 나라로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들었다. (엄영식, 210)

여기에 일제하 유일한 동경 유학생이 학병에 끌리어나갔다 돌아와서 조용히 살고 있으니, 갖가지 의미에서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반공 클럽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솔직한 시국 견해의 피력을 요청 받았다. 그때 나는 이런 상태가 결코 오래 지속 못한다는 것, 38선은 불변한 게 거될 것이지만, 미국의 국력으로 보아 소련보다 분명히 앞서니, 결국 공산

당은 몰락하고 말리라는 것 등을 밝혔는데, 이는 그 당시 나의 솔직한 시
국관이었던 것이다. (신상초, 193.)

이러한 학병세대는 마음먹기에 따라 정치적인 위치에서 건국사업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소련군정하의 북한은 공산주의 노선의 조직사회로 정
비되고 있었고, 이들은 중국전선의 조선의용군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
을 안고 귀국하였던 터라 정치판에 나서는 것은 고려할 문제가 되지 못했
다.

해방기에 나라세우기의 방향을 둘러싸고 남한이 우익이 우세한 가운데
좌익과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좌익이 우세한 가운데 우익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물론 북한에서는 남한의 좌익세력처럼 세력을 과
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조만식을 당수로 하는 조선민주당이 북한의 자유
주의자들의 결집체가 되고 있었고, 신상초, 엄영식 등의 학병세대처럼 고급
인재들이 사회의 부름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다. 신상초나 엄영식은 그들
의 부유한 집안으로나 일본유학생으로서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이력으로도 세간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세계 현대사를 놓고 볼 때,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국에서는 식민제국을 통해 수입된 이념과 지식을 교육받은 세대가 건국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이 세대는 자국 근대화 추진에 강한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규정을 하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 식민지 고등교육을 받은 학
병세대가 그 중심에 있다.²⁹⁾

인용문의 내용은 남한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북한이 고향인 의용
군 출신 학병에게 해당될 수 없는 것이었다. 물론 의용군으로 복무했던 학
병세대 중에는 북한 사회에서 활약한 이도 있을 것이고, 신상초의 『탈출』
에는 ‘박’이라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극히 예외라고 할 것이 20
여명의 의용군 학병세대 중에서 신상초와 엄영식의 수기에 등장하는 부대
이탈자만 해도 10여명에 해당한다. 이들이 대부분 월남을 하였다는 사실은
의용군에서와 마찬가지로의 갈등이 학병세대와 북한사회에서 되풀이되었기

29) 김건우, 『월남 학병세대의 해방 후 8년-학병세대 연구를 위한 시론』, 『민족
문학사연구』57, 민족문학사학회, 2015, 305쪽.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건국의 주체되기에서 비켜난 이들이 선택한 것은 교사로서 복무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교사되기가 건국의 주체되기에서 비켜나 있다고 하는 것은 교사노릇이 하나의 방편으로서 임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교원되기의 의미에 대해 김윤식은 “교원 노릇 하기 자체가 지식인의 안식처였다”고 말하고 있다. “자유주의 사상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의 몫을 한동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³⁰⁾ 이들에게 교원으로서 학교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급변하는 세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산중학교와 정주중학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정세를 관망하던 신상초와 엄영식은 더 이상의 ‘탈출’은 하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가정을 이루고 안정을 꾀하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고향을 떠나 정치사회적 이상을 펼치려는 결심을 하기엔 그동안의 시간이 너무도 피로했기 때문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월남을 결심하게 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낙인 때문이었다. 북한의 학병세대는 조선의용군에서 이탈한 자들이므로 ‘반동’이라는 낙인이 찍힌 면이 있었다. 실제로 이들은 도 보안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옥살이를 하기도 했던 것이다.

내가 화중분맹을 떠날 때 나에게 총알 한 알을 선물로 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어 고향에서 만나자며 울먹이던 그가 아니었던가! 그도 나같이 꿈에 그리던 고향땅을 밟고 반동죄로 체포되는 신세가 되었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우리들 학도병, 특히 일본군 병영을 탈출하여 독립동맹측으로 들어갔던 우리들의 운명이 너무나도 야속함을 느꼈다.

일본군영을 탈출하여 운이 좋게 임시정부 쪽으로 가게된 학도병들은 모두 독립투사가 되어 영광된 귀국을 했건만, 우리는 오히려 고향에 돌아와 모두 철창 신세를 지고 있으니, 우리의 운명에 통탄할 뿐이었다. (엄영식, 236)

이들이 일제의 항복 선언 후에도 한동안 귀국하지 못하고 조선의용군으로서 행군하며 자신들의 존재론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미 남한에서는 학병동맹이 결성되고 『학병』잡지를 발간하며³¹⁾ 건국과정에서 청년지식인으로

30) 김윤식, 앞의 책, 120쪽.

31) 1집이 1945년 12월에 간행되어 46년 1월1일자로 발간되었고, 46년 2월에는

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후 북한으로 귀국한 의용군출신의 학병세대가 감시와 투옥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의용군출신의 학병세대가 필연적으로 월남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학병들의 집안이 대부분 지주, 부르주아였기에 토지 개혁 등의 사회개혁정책으로 부농에서 소농으로 전략한 상황이기도 했다. 신상초의 경우 월남의 과정에서 발각되어 강제노동형을 선고받고 탄광노동의 와중에 병보석을 얻어 월남하게 되면서 가족과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된다.

파란만장한 격동의 시간들이 월남한 학병세대에게 끼친 영향은 분명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자유와 반공이 이들이 가진 정치적 지향이었다. 하지만, 월남한 일부 지식인이 보여준 극우적 언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이 가진 근대적 합리적 자의식이 그들이 월남의 극우경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지식인의 투쟁은 곧 ‘휴머니즘’의 가치를 짓밟는 모든 것에 대한 영원한 투쟁”³²⁾이라는 말은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는 지식인들의 모습과 겹쳐 한편으로 경건한 울림을 준다. 현대사 속에서 학병세대만큼 ‘운명’적인 존재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식민지배와 제국의 용병으로서의 모멸감, 해방공간의 격랑과 남북의 전쟁, 정치적 암흑기 등을 일생에 걸쳐 모두 겪어낸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 파란만장한 여정에서 공산주의든 자유주의든 어떠한 진영에서든 지식인들의 투쟁은 자기자신과 국가의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휴머니즘적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고가 고찰의 대상으로 한 연안행 탈출 학병들은 항일전선에서의 투쟁이 영광스러워야 했음에도 그들의 출신계급이나 지식인으로서의 자의

2집이 발간된다. 학병동맹도 미군정의 무기소지 금지법령과 학병동맹사건으로 인해 뜻을 펼치지 못하게 된 바 있으나, 대한민국의 건군에 참여하거나 교육분야 등의 사회 각계에 진출하여 사회기반을 형성하였다.

32) 파스칼 오리·장 프랑수아 시리벨리, 앞의 책, 12쪽.

식을 부르주아근성으로 싸잡아, 버려야할 구태악으로 취급받는 처지에 놓였다. 지식인의 당파성을 지탱해주는 것은 서구 근대에 대한 지향, 즉 공론장과 독재를 거부하는 자유주의의 정치적 정체성이다. 이러한 합리적 근대성을 인식체계로 구성하기 위해서 일제말의 혁명세대를 뒷받침해 준 것은 자본이었다. 이러한 존재론 자체를 부인해야 하는, 즉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현실을 수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제 나는 소위 혁명가로 탈바꿈하여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군과 싸우러 서주로 향하고 있다”(엄영식, 121)

이 독백 속에서 벽차기도, 착잡하기도 했을 심정이 연상이 된다. 이 말은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혁명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혁명가라 함은 ‘기존의 사회 체제를 거부하고 법이나 사회 제도, 경제 조직 따위의 기초를 급격하게 바꾸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구체제를 신체제로 바꾸는 활동가를 뜻하며 기초를 바꾼다는 것은 그 사회체제를 만드는 이념의 교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옳을 것이다. 구체제에서 신체제로의 이행이라는 것 자체가 서구적인데,³³⁾ 조선은 이 사이에 식민지배에서의 해방이라는 중간단계를 더 거쳐야 했다. 당시의 아시아 공산주의가 반제국주의, 압제에 대한 항거 등을 내세웠기에 독립에 대한 지향과 공산사회로의 혁명을 크게 구분하여 사고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러한 인식이 지식인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사고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구분해서 사고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 우리 근대사의 아픈 점이다.

33) 기존의 체제가 사회의 모순과 불만을 해소할 수 없을 때 반란이 일어나고 가담한 민중세력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진보’로 결부될 때 혁명이 된다. 혁명이 될 때 새로운 체제가 성립한다. 구체제에서 신체제로의 이행이 곧 혁명이라 할 것이다. 혁명에 어떠한 모델과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혁명은 근대적이라는 것이다. 신분제를 근간으로 하는 봉건제에서 부르주아가 탄생하는 근대로의 이행이 근대 유럽의 좌우의 혁명을 불러왔다는 것은 서구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데이비드 파커 외, 박윤덕 역, 『혁명의 탄생』, 교양인, 2009.)

특히 지식으로서 배운 마르크스주의가 불합리한 현실의 타개에 적합한 것으로 동조했다 하더라도 그 사상이 현실에서 왜곡되어 적용되거나 다른 양상으로 구현될 때, 지식인들은 현실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을 느낀다. 그 환멸의 중심에는 근대성이 그리고 그 근대성의 중심에 존재하는 것은 결국 휴머니즘이다. 우리 문학에는 이러한 지식인들의 환멸과 비극에 대해 이야기한 서사들이 존재한다.³⁴⁾ ‘연안’으로 갔던 학병들이 북한에서의 감시와 적대를 피해 월남한 후 남한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때, 그들에게 주어진 공론장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정치적 공동체의 공동의 서사를 구성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은 환멸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비극을 이기는 논픽션의 힘을 보여준다.

수기라는 기록문학을 고찰하면서 복잡한 역사적 이야기들을 모두 담아 논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본고의 한계점이 될 것이다. 학병세대의 서사에 대한 고찰은 바로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고찰과 이어지고 근대성과 정치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34) 대표적으로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이병주의 『지리산』 등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 등장하는 지식인 빨치산 하기훈과 박태영은 지식인의 공산주의적 이상과 현실의 공산주의에서 발생하는 괴리가 가져온 환멸과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 (노현주, 『코뮤니스트와 멜랑콜리-지식인 빨치산의 심리기제에 관한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5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참고문헌

-기본 텍스트-

- 신상초, 『탈출』, 녹문각, 1966.
엄영식, 『탈출』, 야스미디어, 2005.

-국내서 및 역사

-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7.
김준엽, 『장정』1, 나남, 1989.
김학철, 『최후의 분대장』, 문학과지성사, 1995.
1.20학병사기간행위원회, 『학병사기』1~4, 1.20동지회, 1987.
학병동맹본부, 『학병』1,2, 1945,12~1946,2.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상탈 무페, 이보경 역, 『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2007.
파스칼 오리 · 프랑수아 시리넬리, 한택수 역, 『지식인의 탄생』, 당대, 2005.
찰스 테일러, 이상길 역,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음, 2011.

-논문

- 김건우, 『월남 학병세대의 해방 후 8년-학병세대를 연구를 위한 시론』, 『민족문학사연구』57, 민족문학사학회, 2015.
김광재, 『조선의용군과 한국광복군의 비교 연구』, 『사학연구』84, 한국사학회, 2006.
김주용, 『1940년대 항일무장단체의 실상』, 『동국사학』43,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07.
노현주, 『코뮤니스트와 멜랑콜리-지식인 빨치산의 심리기제에 관한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5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류시현, 『태평양전쟁 시기 학병의 ‘감성동원’과 분노의 기억-학병수기집 『청춘만장』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52, 2012.
조윤정, 『전장의 기억과 학병의 감수성』, 『우리어문연구』40, 우리어문학회,

- 2011.
- 최영욱, 『해방 이후 학병 서사 연구: 학병의 ‘기억’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연세대석사학위 논문, 2009.
- 최지현, 『학병의 기억과 국가』, 『한국문학연구』32,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2007.
- 티모시 브레넌, 『형식을 향한 국가의 열망』, 호비 바바 편, 류승구 역, 『국민과 서사』, 후마니타스, 2011.

Abstract

The Student Soldiers toward ‘Yun-An’ : Student Soldier Generation and Communism.

-A Study for two 『Escape』s of Shin Sang Cho and Eom Young Sik

Rho, Hyun-ju(Kyunghee Univ.)

This is a study for narratives of Student Soldier Generation especially of the student soldiers who escaped from Japanese troops to the territory of Chinese people's army.

The escaped student soldiers was incorporated to Korean Volunteer Army and the number of those soldiers was not smaller than the number of the Independence Army of Korea. They had fought the front of anti-Japanese armed struggle from 1944 to 1946. During these struggles, conflicts emerged between the liberal modernity of student soldier and the communism of Korean volunteer army. The student soldiers wanted to make a rational 'Public Sphere', but Korean volunteer army aimed to follow the international policy of communism. Both could not share the narratives to a political community.

Therefore, the student soldiers carried out the second escape toward their homeland. Although the student soldier's contribution on anti-Japanese armed struggle, they were confronted surveillance and imprisonment in North Korea and decided to defect from it.

In the last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communism was the knowledge for Korean intellectuals. But the actualization of communism as a knowledge went against a rational modernity, it made a psychological conflict.

‘연안’으로 간 학병들 ; 학병세대와 커뮤니티즘

After defecting from North Korea out of surveillance and hostility, The student soldiers of ‘Yun-An district’ performed the pivotal roles in South Korea. Also they contributed to build the united narratives of political community by asserting the political liberty at ‘Public Sphere’.

▣ Key words: Student soldier generation, Korean volunteer army, Modernity, Public Sphere, Political identity, Liberalism, Liberation period

접수일자: 2016. 6. 30 심사일자: 2016. 7. 18 게재결정: 2016. 8. 10